

설득 목적 경험 서사에 나타난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논증행위

지서영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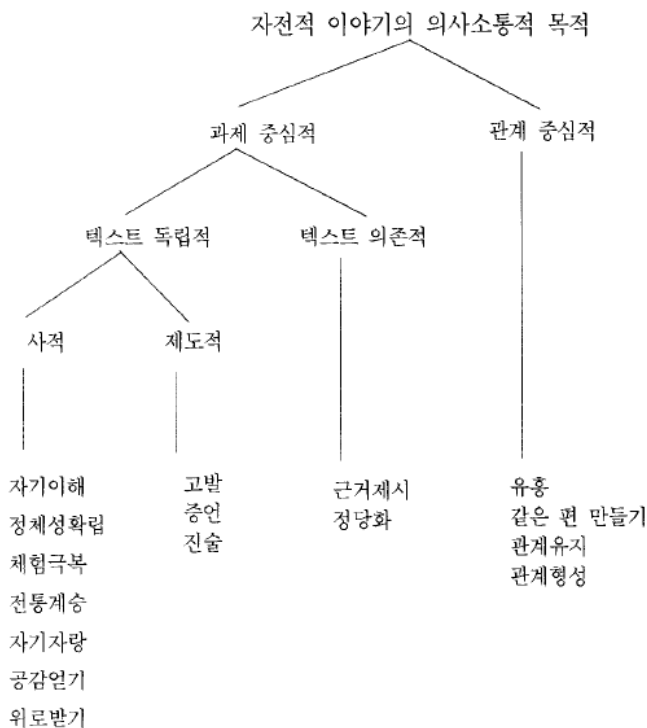
* 이 논문은 제74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2021.8.21.)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경험과 경험 서사
- III. 경험 서사와 논증
- IV.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논증행위
- V. 결론

I. 서론

경험 서사(experience narrative)란 표현 주체의 경험이 서사화된 담화를 말한다. 소설가가 자신의 유년기에 겪었던 전쟁 경험을 허구적으로 서사화한 소설(임경순, 2003)에서부터 자기 표현적 글쓰기(김정란, 2014)에 이르기까지 허구 서사와 실제 서사를 폭넓게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허구 서사를 제외하고, 주체의 경험을 서사화한 실제 서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경험 서사는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을 가진다. 박용익(2006: 145-146)은 “소설이나 동화 그리고 영화 등과 같은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와, 말하는 사람이 직접 체험했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체험(또는 전기 이야기)’”를 구분, 후자인 ‘자전적 이야기’의 의사소통 목적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그림 1〉 자전적 이야기의 의사소통 목적(박용익, 2006: 146)

위의 도식은 경험 서사의 의사소통 목적을 간결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험 서사의 의사소통 목적은 크게 과제 중심적 목적과 관계 중심적 목적으로 나뉘고, 과제 중심적 목적의 경험 서사는 텍스트와 독립적으로 서사 그 자체를 위해 수행되는지, 선행하는 텍스트에 의존하여 수행되는지에 따라 다시 나뉜다. 텍스트 독립적 서사의 경우 서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따라 사적 서사와 제도적 서사로 나뉜다.

경험 서사와 허구 서사를 망라하고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는 자기이해·정체성 확립 등의 사적 경험 서사, 또는 관계 유지 및 형성과 같은 관계 중심적 경험 서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다음의 서사는 국어교육의

논의 밖에 존재했다. ‘14년 전 대표팀 구타 첫 폭로…○○○ 선수’라는 제목의 뉴스 인터뷰로, 앵커가 ‘당시 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을 나올 수밖에 없었냐’고 묻자 ○○○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JTBC, 2018).

일단 2004년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운동선수는 맞으면서 할 수도 있지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더 강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상황이 변했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기 때문에 또 어디에 얘기를 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때 선수촌 안에 같이 있었던 코치 선생님들이 이것을 밖에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심하게는 너희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앞으로 어디를 가든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 망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꿈이 있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꿈이 있고 하니까 또 그것을 쉽게 못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참고 참다 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는 우리는 이제 못 하겠다. 정말 선수 못 하겠다, 정말 못 하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 선수는 2004년 당시 선수촌의 폭력적 훈련 경험을 서술하며 문제의식을 표출한다. 위 경험 서사는 일종의 제도적 경험 서사로서 청소년 국가대표를 향해 가해졌던 폭력의 부당함, 훈련 문화의 개선 촉구 등 다양한 명시적·비명시적 주장을 포함하는 설득적(persuasive) 목적을 가진다.

실제 경험 서사는 이처럼 서사-논증의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르의 복합 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서사 연구가 문학교육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면서 소설을 전경으로 ‘경험’과 ‘경험 서사’가 규정되었고, 이러한 논의 경향을 표현교육에서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일상적인 자전적 표현 행위와 이를 통한 학습자의 정체성 구성 또는 재구성, 경험 서사의 관계적 측면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국어교육은 학습자가 경험 서사의 논증적 측면을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표현·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을 재정의함으로써 경험의 구조와 경험 서사의 구조를 유기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나아가 경험 서사의 논증적 측면을 경험 서사의 의미를 구조화하는 두 의사소통 주체인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논증행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경험과 경험 서사

1. 경험의 재정의

경험 서사는 경험을 서사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표현의 재료가 되는 경험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질문으로 대두한다. 경험은 서사 이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육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사화된 경험’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경험’ 그 자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경험이란 무엇인가?

‘경험’이라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차원, ‘경험한다’와 ‘경험했다’를 포함한다. ‘나는 새소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새소리가 난다는 외부의 사건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이다. 즉, ‘외부 물체들에 의해 우리에게 새겨지는 감각 인상’(Copleston, 1959/1991: 18), 즉 지각(perception) 또는 지각에 의해 알게 된 것을 말한다. 한편 ‘나는 새소리를 경험했다’는 것은 회상을 수행하는 그 시점에서 과거의 새소리를 돌아보고 있음을 말한다. 즉 ‘경험했다’는 것은 ‘그러한 인상들의 기억’을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경험은 지각 또는 회상이다.

경험-지각과 회상-은 객관이 아닌 주관의 문제, 존재가 아닌 인식의

문제이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 그 당시에 사건들을 경험한 방식, 현재 그 사건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억하는 방식,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며 “그러한 단계들 사이에는 사고 과정으로 인해서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개인의 구성적 행위가 놓여 있다”(Lucius-Hoene & Deppermann, 2004/2011: 49).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사건을 지각한다는 것은 사건을 ‘그대로’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회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의 지각 또는 지각의 지속(duration)을 ‘그대로’ 저장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구성한다’. 지각으로서의 경험은 구성된 사건이며 회상으로서의 경험은 구성된 지각이다.

1) 지각으로서의 경험

지각이란 무엇인가? Stewart, et al.(2005/2015: 190-19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각(perception)이란 사람들이 감각적 신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각 사람이 지각하는 경험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의 위치와 입장에서 이해한 것을 통해 형성된다. 지각이 감각 신호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문제라면, 모든 사람들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지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각이 작용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지각은 매우 능동적인 과정이다. (...)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감각 뉴런이 신호를 받아들이자마자, 당신은 이 정보를 통해 선택, 조직, 추론을 시작한다. 선택, 조직, 그리고 추론 없이는 지각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각은 해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밈줄 연구자)

외부에서 감각 신호가 들어오면 인간은 신호를 선택하고, 조직하고, 추

론한다. 선택이란 들어오는 감각 입력(신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고, 조직은 수용한 감각 신호를 조직(organizing)하는 것을 말하며, 추론은 앞서 두 단계에 의해 선택·조직된 감각 신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그것 너머로 나아가는(go beyond)”) 과정이다(Stewart, et al., 2005/2015: 192-196).

이때 “추론과 판단은 우리가 선택하여 집중한 신호와 우리가 자신의 추정, 기대, 그리고 목적과 관련지어 그것을 조직하는 방식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일련의 처리를 통해 “사람은 객관적인 실재의 세계가 아니라 의미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구성 지각(constructive perception)은 감각 데이터, 사전 지식, 상위 수준의 인지과정을 사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한 일종의 가설 형성 및 검증에 해당한다(Sternberg & Sternberg, 2016/2016: 100-101, 196).

2) 회상으로서의 경험

회상은 지각이 아니며, 회상된 것은 지각된 것과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반박하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 Kahneman은 그의 저서 『Thinking, Fast and Slow』의 한 부분 「Two Selves」(Kahneman, 2011: 385)에서 ‘경험자아’(experiencing self)와 ‘회상자아’(remembering self)를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기억(memory)은 (Kahneman에 의하면 System 1¹⁾에 의해) 우리가 실제로 겪은

1) Kahneman은 사고의 ‘Two systems’가 존재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ystem 1 operates automatically and quickly, with little or no effort and no sense of voluntary control. System 2 allocates attention to the effortful mental activities that demand it, including complex computations. The operations of System 2 are often associated with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agency, choice, and concentration. (...) When we think of ourselves, we identify with System 2, the conscious, reasoning self that has beliefs, makes choices, and decides what to think about and what to do. Although System 2 believes itself to be where the action is, the

기쁨과 고통의 경과(duration)가 아니라, 에피소드의 가장 강렬한 기쁨 또는 고통의 순간과 에피소드의 마지막 순간에 느낀 감정의 표상이다.

Kahneman(2011)의 논의는 수치화된 공리(utility)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주관적 회상의 과정을 구조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에 의해 회상을 구조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한 이종우(2015)의 현상학적 논의는 회상의 구조, 나아가 경험 서사의 구조를 수월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종우(2015: 279)는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기능에 따라 회상을 4단계로 구분한다. 모든 의도적인 회상(재기억) 활동은 ① 기억대상에 관한 최초의 지시가 주어지는, 그러나 그것의 규정들이 아직 모호한, 재기억 활동의 시작 단계, ② 기억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주어지는, 그러나 아직 직관되지 않는 단계, ③ 기억대상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재생(직관)되는 단계 ④ 재기억 활동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충분한 수행 후 종료되는 네 단계를 갖는다.

①과 ④는 재기억 자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기억의 시작과 종료이며, 이는 ‘외적 자아’에 의해 주관된다. 외적 자아는 능동적 ‘관심’을 통해 “모종의 기억대상을 제공함으로써 재기억의 명증 획득의 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지향(Leereintention)²⁾의 선별을 통해 재기억의 명증성을 미리 제한”한다. 즉, 외적 자아의 ‘관심’은 재기억 활동을 시작 및 종료, 촉진 및 억제하며 재기억 대상(내용)을 선별하는 데 관여한다. 이때 ‘관심’은 회상 시점

automatic System 1 is the hero of the book. I describe System 1 as effortlessly originating impressions and feelings that are the main sources of the explicit beliefs and deliberate choices of System 2”(Kahneman, 2011: 20-21).

- 2) “후설 현상학에서 지향적 체험은 대상에 관한 공허한 지향으로부터 직관에 의한 충족으로 향하는 목적론적 경향을 지닌다. 이때 공허한 지향은 아직 대상이 직관되지 않은 사념으로서 이때 대상은 그것이 사념된 그대로인지 아닌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인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직관에 의해 대상이 사념된 대로 주어지면 공허한 지향은 충족되면서 명증을 획득하게 된다”(기다 겐 외, 2011: 29; 이종우, 2015: 280 재인용).

(時點)까지 “나름의 역사를 거쳐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관심이 편향적이라면, 재기억 행위를 통해 직관되는 기억 내용 역시 편향적이다(이중우, 2015: 282-292).

②와 ③은 외적 자아에 의한 공지향이 내적 자아에 의해 구체화·충족되는 단계로, 내적 자아는 재기억의 고유한 구조에 수동적으로 종속되어 목표한 대상을 충실히 재생하고자 한다. 내적 자아는 외적 자아에 의해 모호한 규정으로 지어진 공지향을 갖고 “대상의 의미연관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들을 지향”하는 의미지향작용과, 지향된 대상을 현전화하는 충족적 직관으로 특징지어진다. 의미지향작용과 충족적 직관은 외적 자아의 공지향에 의해 지시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활동하므로, 내적 자아는 외적 자아에 종속된다(이중우, 2015: 284-288).

요약하면, 외적 자아는 ‘관심’으로 회상 대상을 선별하고 회상을 촉진·억제하며 내적 자아는 선별된 대상을 재생한다. 이러한 관심이 내적 자아의 재생을 통제하기 때문에 회상은 재생이 아니라 구성(construction)이 된다.

2. 경험 서사의 두 자아: 경험자아와 서술자아

경험 서사는 경험을 서사화한 것이다. 동어반복으로 보이는 이 정의가 의미 있는 까닭은 경험 서사가 경험과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 서사는 경험이 아니며 경험의 언어적 표현이므로,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는 회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두 주체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경험의 구조와 경험 서사의 구조가 대응하더라도,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에 대한 현상학적 설명이 곧바로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경험 서사는 경험을 서사화한 것이라고 할 때, ‘경험’이란 회상인가 지각인가? 다음의 사례를 보자. 다음 사례는 빙상계 폭력에 대한 뉴스 인터뷰의 한 부분이다. R은 면접자(interviewer), E는 피면접자(interviewee)의 표

시이다(JTBC, 2018).

R: 당시에도 역시 외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게 폭행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박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까?

E: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코치 감독님 말이라면은 이제 거의 법으로 알고 살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인제 선수촌 안의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그 이유도 모른 채, 저희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밖에도 이제 그런 안에 있는 일들을 말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밖에 그런 일들이 알려질 수가 없었죠. (밀출 연구자)

밀출 친 부분을 기준으로 서술의 시점(時點)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접자가 ‘왜 당시에 말하지 않았나’라는 일부 청중의 반응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자 서술하는 시점(서술시)의 ‘나’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고, 따라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코치 감독님 말이라면은 법으로 알고 살았을 때’라고 말하며 사건이 벌어진 시점(사건시)의 ‘나’가 가지는 지적 미성숙을 근거로 사건시에 폭력이 폭로될 수 없었음을 주장한다.

서술시의 ‘나’를 서술자아, 사건시의 ‘나’를 경험자아라고 하자.³⁾ 밀출 친 부분 이후 경험자아는 사건시의 지각을 서술한다. 코치님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경험자아는 ‘꼭 그래야 한다’, ‘말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험자아의 인식이 서술되어 있다. 경험 서사의

3)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는 논문에 따라 ‘이야기되는 나’와 ‘이야기하는 나’, ‘체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 ‘ET-Ich’와 ‘ED-Ich’ 등 다양한 용어의 변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간결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용어 중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를 채택한다.

의미는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라는 (형태) 구조적 요소⁴⁾의 협력 또는 대립에 의해 구조화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본 연구에서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는 설득 목적의 경험 서사는 아니지만, 실제 경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난 다음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다음은 우울증 연구자 solomon(2001/2014: 76)이 우울증을 설명할 목적으로 자신의 우울증 투병 경험을 서술한 부분 중 일부이다.

기억 기능과 정서적 기능은 뇌 전역에서 이루어지지만 대뇌피질과 변연계가 이 두 기능의 핵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에 이상이 생기면 기억력에도 영향이 미친다. 나는 그 파티를 흐릿한 형체들과 바랜 색채들로 기억한다. 잿빛 음식들, 베이지색 사람들, 흐린 불빛. 파티 중에 나는 진땀을 흘렸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 모든 걸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려고 애썼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체면을 잃지 않겠노라는 결의로 가까스로 버틸 수 있었다. 결국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한 듯했고 그 밤을 무사히 넘겼다. (밀줄 연구자)

밀줄 친 문장을 기준으로 시점이 바뀌고 있다. 서술시의 서술자아가 변연계와 기억력의 관계를 설명하며 ‘나는 그 파티를 흐릿한 형체들과 바랜 색채들로 기억한다’고 서술한다. 이 서술은 곧 회상의 수행이며 서술자아는 회

4) 반 다이크는 텍스트의 구조를 미시구조(microstructure), 거시구조(macrostructure), 초구조(상위구조, superstructure)로 나눈다.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는 의미 구조, 초구조는 형태 구조(form structure)에 해당한다(민병곤, 2003: 49- 50). “수많은 명제로 이루어진 문연속의 전체나 부분은 더 총괄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의미단위를 형성”하게 되며, 거시구조는 “일련의 명제단위들을 구성”하는 의미적 기능을 가진다(Dijk, 1980/2001: 76- 77). 한편 초구조(상위구조)는 “담화의 거시구조적 내용을 위해 전체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관습화된 도식”을 말하며, 이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 담화 형태가 내용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증”한다(Renkema, 1992: 99- 100; 민병곤, 2003: 50 재인용).

상을 수행한다.⁵⁾ 한편 밑줄 친 문장 이후 시점은 사건시로 이동한다. 경험자 아인 ‘나’는 사건시에 벌어지고 있는 파티를 ‘베이지색 사람들, 흐린 불빛’으로 인식하며 그 원인을 ‘스트레스 탓’으로 추론한다. 즉, 경험자아는 지각을 서술한다.

그러나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에 의해 ‘서술되는 경험’은 ‘실제 경험’과는 다르다. 우리는 네 차원을 구분해야 한다. 사건시의 지각, 그리고 그 지각을 구성한 회상, 그리고 회상의 서술, 회상의 서술 안에 존재하는 지각의 서술. 사건시의 지각은 회상된 지각과 다르며, 서술된 지각 역시 그 어떤 지각과도 ‘같은’ 것은 아니다. 사건시의 지각과 회상된 지각 사이에는 주체의 구성(construction)이 놓여 있으며, 회상된 지각과 서술된 지각 사이에는 언어화가 놓여 있다. 이 차이를 무시할 경우 큰 개념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회상된 지각과 서술된 지각은 언어로 표현된 것인지의 기준에서 구분된다. 언어로 표현된 것은 표현을 수용할 의사소통 상대방을 전제한다. 이 점에서 현상학에서 논의되는 회상의 명증성-회상된 지각과 사건시의 지각의 일치-은 의사소통에서 논의되는, ‘답화 위에서 회상된 것’의 ‘명증성’-회상된 것이 ‘참’인가-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특히 설득 목적 경험 서사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III. 경험 서사와 논증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득, 논증, 논증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 5) 서술자아는 회상을 수행하는가 회상을 서술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서술자아의 서술과 서술자아의 회상을 구분한다. 하나, 서술자아는 회상만을 서술하지 않는다. 둘, 서술자아의 서술은 회상 이상의 기능을 한다.

논증행위와 관련하여 논의될 때 설득(persuasion)이란 청자의 입장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리킨다. 논증행위(argumentation)란 설득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적 기술 중 이성적(logos)인 것을 가리킨다.

논증(argument)은 논증행위와 구분되는 용어이다. 논증과 논증행위 모두 추론(reasoning)의 일종이라고 할 때, 논증은 개인적인 추론 과정 또는 추론의 결과로서 제시된 명제의 집합이라면 논증행위는 사회적(의사소통적)인 추론 과정 또는 결과로서 담화(텍스트)를 가리키며(한국화법학회 화법용어해설위원회, 2014: 224) 청중에 대하여 주장의 수용가능성(acceptability)⁶⁾을 증대시킬(설득) 목적을 가진다.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 의사소통으로서 경험 서사의 논증적 성격을 논의한다는 것은 논증행위의 관점에서 경험 서사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험 서사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다음은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의 인터뷰 “내 몸이 증거”...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 씨” 중 일부이다. 피면접자의 답변은 충분한 길이를 갖추고 있으며 크게 [1] 가슴기 살균제의 사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상 경험의 서술, [2] 1심 과정에서 들은 판사의 의견과 1심 결과에 대한 주장, [3] 기업의 사과 촉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경험 서사의 구성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사건서의 경험 서술이 드러난 [1]과 최종 주장이 드러난 [3]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JTBC, 2021).

[1]

R: 2005년부터 가슴기 ○○○를 써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쓰신 것이고 또 어떤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신 겁니까?

6) 논증활동(argumentation)이란 “합리적인 판단에 앞서 어떤 입장을 정당화(또는 반박)하려는 의도로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논박의 여지가 있는 그 입장을 청자 또는 독자가 수용할 가능성(acceptability)을 증대시키는(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추론(reason) 행위이다”(Eemeren, et al., 1996: 5; 민병곤, 2001: 242 재인용).

E: 아이가 2005년 1월에 태어났는데, 사실 오늘이 아이 생일이예요. 오늘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가슴기에 세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출산하기 한 달 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여름되기 전까지 사용했습니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건 아이가 움직임이 많아지는 시기인 뒤집기를 할 때부터 기침이나 쉼쉼거리는 숨소리가 많이 났는데 그때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자주 다녔고 그때마다 모세기관지염, 천식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폐렴으로도 그 시절 여러 차례 입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아이 출산 후 감기에 걸리면 잔기침이 2~3개월 정도 굉장히 길게 지속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대 되니까 이제 감기도 잘 안 났는다고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밀줄 연구자)

[3]

R: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업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으로부터 사과라든가 입장을 따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E: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는 사과도 받고 가슴기 살균제 문제가 ○○ 처벌로 끝난 게 아니라 ○○, ○○○, ○○ 아직 많이 남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기업들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 사과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였는데요. (중략) 주범이 무죄고 판매한 기업은 형을 받고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정말 무죄라는 걸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가슴기 ○○○ 피해자인 ○○○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줄 연구자)

범박하게 요약하면, E는 [1]이라는 사실이 발생했으며 따라서 [3]의 규범적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1]이 ‘사실’이라는 것으로서 [3]의 규범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경험 서사를 포함한, 또는 경

험 서사 그 자체에 의한 설득은 이처럼 경험 서사가 ‘사실’임을 증명⁷⁾하고자 한다. 바로 이 서술들이, 대립하는 또는 경합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때 ‘사실’이란 객관 세계에 ‘실제로’ 발생한 ‘실제 사실’(Tatsache) (Bayer, 1999/2019: 10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경험은 전적으로 주관의 문제이다. ‘회상의 명증성’이란 회상된 지각과 사건시의 지각이 일치하는가의 문제이지, 회상된 지각과 ‘실제 사건’이 일치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한편 설득 목적 경험 서사에서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상된 지각에 대하여 제기되는 명증성의 문제는 서술된 지각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실’의 문제와 같은 것일 수 있는가? 설득 목적 경험 서사의 경우 ‘실제 사실’ 또는 ‘실제 지각’은 이차적인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제시한 Kahneman(2011)의 연구에서, 그는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환자가 ‘실제로’ 서술한 고통과 대장내시경이 종료된 이후 서술한 고통을 비교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와 후자는 일치할 수 없을뿐더러, 전자와 후자가 일치하는 정도에 주장의 설득력, 독자의 수용가능성이 비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 설득 목적 경험 서사의 ‘사실’은 일차적으로 무엇을 설득 대상(청중)이 사실이라고 동의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즉, 경험 서사에서 ‘그렇게 지각되었다’는 주장은 ‘그렇게 지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청중의 동의에 의해 사실이 된다. ‘실제 사실’ 또는 ‘실제 지각’은 청중이 사실이라고 동의하지 않은 서술에서 파생되는 추가 쟁점이다.

7) 본 연구의 ‘증명’은 페렐만(Perelman)의 ‘증명’과 다른 용법을 채택한다. 페렐만의 증명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형식논리학적 논증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용어라면, 본 연구에서 증명은 일상 언어에 가까운 용법으로서 근거를 제시하여 진술의 내용이 참임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IV.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논증행위

설득 목적 경험 서사에서 사실의 증명이 일차적 목적이 되며, 이 증명은 청중의 동의에 의해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경험 서사에서 ‘바로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논증행위는 경험 서사의 의미를 구조짓는 두 주체인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에 의해 수행된다.

먼저, 경험자아는 사건을 구성한다. 3장의 사례를 다시 보자(JTBC, 2021).

R: 2005년부터 가슴기 ○○○를 써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쓰신 것이고 또 어떤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신 겁니까?

E: 아이가 2005년 1월에 태어났는데, 사실 오늘이 아이 생일이예요. 오늘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가슴기에 세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출산하기 한 달 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여름되기 전까지 사용했습니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건 아이가 움직임이 많아지는 시기인 뒤집기를 할 때부터 기침이나 쉼쉼거리는 숨소리가 많이 났는데 그때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자주 다녔고 그때마다 모세기관지염, 천식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폐렴으로도 그 시절 여러 차례 입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도 아이 출산 후 감기에 걸리면 잔기침이 2~3개월 정도 굉장히 길게 지속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대 되니까 이제 감기도 잘 안 났는다고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밀줄 연구자)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건’을 기준으로 서술사에서 사건시로 이동, 경험자아는 자신이 보고 들은 아이의 행동을 ‘기침’, ‘쉼쉼거리는 숨소리’였다고 표현하며 그 원인을 ‘감기’라고 추론한다. 한편 경험자아는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녔으며 ‘모세기관지염’, ‘천식’, ‘폐렴’이라는 전문가의 설명

을 듣는다. 한편 자신이 직접 겪은 증상 역시 ‘갑기’, ‘잔기침’으로 표현하며 그 원인은 ‘우리가 30대가 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서술자아에 의하면 이 추론은 틀린 것으로, 서술자아는 호흡기 증상의 원인을 ‘갑기’가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지적하며 관련 기업 처벌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1]에서 경험자아의 서술이 서술자아의 서술과 충돌한다는 것만으로 틀린 논증, 실패한 논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히 청중이 가습기 살균제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최근의 논란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서술자아의 추론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건시 경험자아의 인지적 수준에서 같은 사건을 같게 구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호흡기 증상과 같은 사건을 마주한다면 ‘갑기’, ‘연령 변화’를 원인으로 추론할 것이라는 기대, 청중에 대한 추측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청중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청중이 경험자아의 사건 구성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2장의 사례를 다시 보자(JTBC, 2018).

R: 당시에 또 역시 외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게 폭행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박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까?

E: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구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코치 감독님 말이라면은 이제 거의 법으로 알고 살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선수촌 안의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그 이유도 모른 채, 저희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밖에서 이제 그런 안에 있는 일들을 말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밖에 그런 일들이 알려질 수가 없었죠. (밀줄 연구자)

면접자인 앵커는 ‘왜 당시에 말하지 않았나’라는 청중의 반론을 우회적

으로 표현한다. 밑줄 친 부분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후부터 경험자아가 당시의 상황을 서술한다. 코치가 ‘외부에 인제 선수촌 안의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험자아는 ‘꼭 그래야 한다’(말해서는 안 된다), ‘말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라고 사건을 인식한다.

서술자아는 사건시의 경험자아가 ‘굉장히 어렸’으며 ‘아무것도 몰랐을 때’이고, 따라서 ‘코치 감독님 말이라면은 이제 거의 법으로’ 알고 살았다고 서술하며 경험자아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평가한다. 코치의 말을 무조건 따른 이유로 경험자아의 연령, 무지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때 청중이 서술자아의 논증-청소년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므로 코치(교사)의 말을 무조건 따를 수 있다-을 승인하면 위의 서술은 사실로서 합의된다. ‘그렇게 지각될 만하다’는 것이다.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는 논증행위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 경험자아는 서술자아의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사건시의 사건을 구성하며, 서술자아는 경험자아에 의해 구성된 지각을 다시 구성, 경험자아의 서술을 보충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사실을 확립하고 그림으로써 사실 너머로 나아간다. 이러한 논증행위에서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증명은 연역적 논리 규칙이 아니라 청중이 공유하는 추론 도식에 기댈으로써 달성된다.

그러나 만일 청중이 쉽게 동의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장의 사례에 대하여 어떤 청중은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지각한 게 맞나’라고 물을 수 있고, 3장의 사례에 대하여 어떤 청중은 ‘왜 그 당시에는 감기라고 추론하였는데 지금은 감기라고 추론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쟁점이 이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서술된 지각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의 문제에서 서술된 지각이 당시의 ‘실제 지각’과 일치하는가의 문제(2장)로 이동하거나, 아예 주관적 지각의 문제를 떠나 가슴기 살균제에 의해 호흡기 증상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의 문제(3장)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쟁점이 ‘사실’로부터 ‘실제 사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새

로운 입증 방법이 요청될 수 있다.

V. 결론

경험 서사는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을 가지며, 그중에서도 설득 목적 경험 서사는 서사-논증의 이분법, 또는 기존의 장르 중심 접근에 의해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경험 서사의 논증적 측면을 이해하고 설득 목적 경험 서사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경험자와 서술자간의 논증행위를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표현 주체의 경험이 서사화된 실제 경험 서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경험 서사의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 중 설득적 목적에 주목하여, 경험 서사의 논증적 설명 필요성 및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 경험을 재정의하고 경험 서사가 경험에 의해 어떻게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경험은 ‘경험한다’와 ‘경험했다’의 두 차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사건으로서의 지각과 구성된 지각으로서의 회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상에 대한 현상학적 설명을 인용, 회상시의 ‘외적 자아’의 관심에 의해 ‘내적 자아’의 재생이 통제받으며 이러한 회상의 구조는 경험 서사의 구조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회상과 담화는 다르며,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는 의사소통의 행위 주체라는 점에서 경험 서사의 두 시점(時點)에 대응하는 두 자아, 서술자아와 경험자아가 회상의 두 자아,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에 기능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아는 회상을 서술하며 경험자아는 지각을 서술한다. 이때 ‘실제’ 지각, 회상된 지각, 서술된 지각은 모두 다르며 이들 사이의 개념적 구분이 설득 목적 경험 서사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3장에서 설득 목적 경험 서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경험 서사의 설득은

‘사실’의 증명에 일차적 목적을 둔다고 보았으며 ‘사실’을 ‘실제 사실’과 구분, 서술된 지각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즉 서술된 지각의 수용가능성 문제로 개념화하였다. 즉, 경험 서사에서 ‘그렇게 지각되었다’는 주장은 ‘그렇게 지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청중의 동의에 의해 사실이 된다.

따라서 경험 서사의 설득은 청중이 공유하는 추론 도식에 기댔으로써 달성되며 이 설득은 경험 서사의 두 의사소통 주체인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논증행위에 의해 달성됨을 4장에서 살펴보았다. 경험자아는 사건을 구성하여 사건시의 지각을 서술하고, 서술자아는 경험자아가 서술한 지각을 재구성하며 논증행위의 성공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서술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논증행위에도 불구하고 청중의 반론이 지속되는 경우 대개 ‘실제’의 쟁점으로 이동, ‘실제 지각’ 또는 ‘실제 사실’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구체적인 논증행위, 논증행위 이외에 경험자아와 서술자아가 사용하는 설득의 수단, ‘실제 지각’ 또는 ‘실제 사실’의 입증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1.10.29. 투고되었으며, 2021.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12.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정란(2014),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비판적 검토와 지도 방향 모색」, 『작문연구』 20, 199-229.
- 민병곤(2001), 「논증 이론의 현황과 국어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12, 237-285.
- 민병곤(2003),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6, 8, 10학년 학습자의 작문 및 토론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익(2006), 「이야기란 무엇인가?」, 『텍스트언어학』 20, 141-161.
- 이종우(2015), 「후설 현상학에서 재기억의 명증 문제에 관하여」, 『철학논구』 42, 271-294.
- 임경순(2003), 『서사표현교육론연구』, 서울: 역락.
- 한국화법학회 화법용어해설위원회(2014), 『화법 용어 해설』, 서울: 박이정.
- Bayer, K. (2019), 『논거와 논증: 논증 분석의 논리적 토대』, 국제사·신형욱(역), 서울: HUI-INE(원서출판 1999).
- Copleston, F. C. (1991), 『영국 경험론: 흄즈에서 흄까지』, 이재영(역), 서울: 서광사(원서출판 1959).
- Dijk, T. A. (2001), 『텍스트학』, 정시호(역), 서울: 아르케(원서출판 1980).
- JTBC(2018. 12. 18.), 14년 전 대표팀 구타 첫 폭로...○○○ 선수, 검색일자 2021. 9. 29., 사이트 주소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3868.
- JTBC(2021. 1. 13.), “내 몸이 증거”...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 씨, 검색일자 2021. 9. 29. 사이트 주소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7963.
- Kahneman, D. (2011), *Thinking, fast and slow, Manbattan*,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 Lucius-Hoene, G. & Deppermann, A. (2011), 『이야기 분석: 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박용익(역), 서울: 역락(원서출판 2004).
- Solomon, A. (2014), 『한낮의 우울』, 민승남(역), 서울: 민음사(원서출판 2001).
- Sternberg, R. J. & Sternberg, K. (2016), 『인지심리학』, (7판), 신현정(역), 서울: 박학사(원서출판 2016).
- Stewart, J., Zediker, K. E., & Witteborn, S. (2015), 『소통: 협력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사회구성주의적 접근』, 서현석·김윤옥·임택균(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원서출판 2005).

설득 목적 경험 서사에 나타난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논증행위

지서영

경험 서사는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을 가지나 선행 연구는 자아정체성의 구성 및 관계적 목적에만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사적 설명을 넘어 논증적 설명을 요청하는 설득 목적 경험 서사를 논증행위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경험은 지각 또는 회상이다. 전자를 ‘실제 지각’이라고 할 때, 실제 벌어진 사건인 ‘실제 사실’과 ‘실제 지각’, 그리고 ‘회상된 지각’은 모두 서로 다르다.

경험 서사는 서술시의 서술자아와 사건시의 경험자아에 의해 구조화된다. 서술자아는 회상을, 경험자아는 지각을 수행한다. 서술자아와 경험자아는 서사 위 경험의 주체, 서사의 의미를 구조화하는 주체인 동시에 독자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 의사소통의 주체이다.

경험 서사의 논증행위는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에 의해 수행된다. 경험 서사가 설득하고자 하는 바는 서술된 지각이 ‘사실’이라는 데 있다. 이때 경험 서사의 ‘사실’은 서술된 지각이 ‘회상된 지각’, ‘실제 지각’,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청중이 서술된 지각을 ‘사실’로 승인하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논증행위는 청중의 추론 도식에 기대어 이루어진다.

경험자아는 지각을 서술하며, 서술자아는 지각을 재구성하여 논증행위의 성공을 도모한다. 반론에 대하여 서술자아가 전면에 나와 지각의 근거를 보충하거나 정당화한다.

핵심어 논증, 논증행위, 설득, 경험 서사, 경험, 경험자아, 서술자아

Argumentation Narrated by Experiencing Self and Narrating Self of Persuasive Experience Narrative

Ji Seoyoung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f experience narrative for persuasive purpose, vastly underexplored, requesting an argumentative explanation beyond the narrative one generally acknowledges.

At the beginning, we shall clarify the concept of ‘experience’ - perception or recall. The perception, called ‘real perception’, is different from ‘real events’ or ‘recalled perception’.

Experience narrative structurally identical with experience are structured by narrative self and experiencing self. Experiencing self at the time of event results in perception and narrating self at the time of narrating performs recall.

The two selves are the two subjects of structuring the meaning of the narrative, and at the same time the subjects of macro-communication. The two selves narrate argumentation trying to persuade that the narrated perception is ‘fact’.

The ‘fact’ of the experience narrative is not a question of whether the described perception coincides with ‘recovered perception’, ‘real perception’, or ‘real fact’(which refers to ‘fact’ in a general sense), but a question of whether the audience approves the described perception as ‘fact’. Therefore, argumentation depends on audience’s approval.

Experiencing self narrates perception, and narrating self reconstructs the percep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argumentation. If audience disapproves, narrating self come to the front to supplement or justify the perception.

KEYWORDS Argument, Argumentation, Persuasion, Narrating Self, Experiencing Self, Experience, Experience Narrative